

원전/재난 아시아의 지금 특집 / 연재

프로메테우스의 뒷 서울에서 쓰는 편지 일본 보물찾기 달인 회사원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⑭ '사슴뿔'로 체력 회복, 인연에 감사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⑬
'조용필'이여, 희망의 빛으로

November 07, 2013

트윗 6

いいね! 8

세상일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이 없다.

10월 초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 초대받아 반짝이는 여배우들을 바라본 건 좋았는데, 비 내리던 조용필 콘서트(연재⑬ 참조)에 이어 이 행사도 야간에 야외라 안 떨어지던 코감기를 악화시키고 말았다.

목 아픔과 콧물에 하반신이 차고 기침 가래도 일었다. 이거 큰일 났다 싶어 부랴부랴 서울로 돌아와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 알레르기성 질환으로 기관지에도 탈이 좀 났단다. 직접적인 원인이 집 먼지의 미세한 진드기라는 건 알았지만, 문제는 축적된 피로 탓에 떨어진 체력과 저항력이었다. 의사선생님 말은 “어쨌든 휴식과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

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 나는 8월에 서강대 한국어교육원을 졸업하고 서울대 기숙사로 이사했었다. 그 뒤 도쿄에 돌아왔다가 9월에는 서울과 베이징 왕복을 반복, 그달 하순부터 다시 서울. 심포지엄과 강연, 모임, 원고집필의 나날이었다. 같은 무렵 일본에서는 줄져 ‘신문기자-현대사를 기록하다’ (지쿠마프리마 신서)가 발간됐다. 43년간의 기자체험을 돌아본 것인데 원고 중 3분의 1은 3월부터 시작한 서울생활 중에 쓴 것이다.

나이 생각도 않고 삼지사방 뛰어다닌 게 탈이었나보다. 당장 방을 청소하고 이불을 바꿔 ‘진드기 추방’에 몰두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완전히 쇠약해진 체력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병원에서는 비타민제 링거도 반복해서 맞았다. 실은 8월까지 생활했던 신촌 하숙집 아주머니가 이 병원 간호사로 계셔서(연재⑨ 참조) 전화했더니 “얼른 오세요” 불러 주시곤 여러모로 우선해 돌봐 주셨다. 고마운 인연이다.

●즐비하게 늘어난 한약방들

그뿐 아니다. 제기동에는 한약방이 즐비하게 늘어난 경동시장이 있는데 아주머니 남편, 즉 하숙집 주인어른이 거기서 약방을 하신다. 시간을 들여 차분히 체력을 회복하려면 한방이 제격인 듯해 들러 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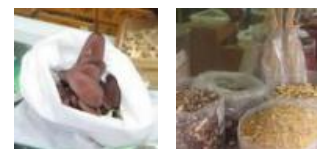
약방에 게시는 한의사 선생님의 진찰 결과 “몸살이네요. 여기엔 녹용이 제일 좋습니다”는 진단을 받았다. 사슴뿔이 예로부터 값비싼 강장제라는 건 알았지만 설마 내가 신세를 지게 될 줄이야. 뿔 부위에 따라 효능이 다르다 해 가격도 상중하가 있었는데, 비싸다고 마다할 상황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하듯 ‘상’을 주문하니 불쌍했는지 주인어른이 조금 깎아 주셨다. 점원분이 녹용에 여러 약초를 섞어 달인 물을 한 번 먹을 만큼씩 팩에 담아 50개를 택배로 보내 줬다.

그 뒤로 팩에 든 한약을 아침저녁으로 먹고 있는데 한 5일 마셨더니 눈에 띄게 체력이 회복된 걸 보면 명불허전. 하지만 안심하기엔 아직 일렀다. 곧바로 힘든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오키나와로 날아가 나하(那覇)항에서 상하이로 향하는 배(피스&그린보트)에 올라 서울대 송호근 교수와 선상대담을 하는 월간 신동아의 기획이었다. 심지어 끝난 직후 일이 있어 바로 항공편으로 도쿄에 돌아가야 했다.

자, 막상 오키나와에 가니 동아시아를 회유하던 배가 태풍 때문에 나하 항에 다가



한약 조제 모습. 가운데 녹용 절편이 놓여 있다.



More AAA

Facebook

Twitter

관련기사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⑬ 조용필이여, 희망의 빛으로

October 10, 2013

“비도 오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은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렇죠?”



트윗 10

いいね! 28

오지 못 해 상하이로 키를 틀고 말았다. 덩그러니 남겨진 우리는 비행기로 한 발 일찍 상하이에. 다음 날 배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항구에 정박한 선상에서 대담하게 됐는데, 시작이 심야로 밀리는 바람에 끝난 게 밤 12시 반을 넘어서였다. 배에서 하룻밤 묵었지만 신경이 곤두서서 한잠도 못 자고 아침 비행기로 도쿄로 향했다.

나은 지 얼마 안 된 몸이 비명을 질렀다. 그래도 고생 끝에 도쿄에 다다른 후 시나브로 원기를 회복한 건 신의 가호인지 사슴뿔의 은덕인지. 여하튼 인생 백 년에 고락이 상반이라는 말을 실감하며, 또 서울 사람들의 신세를 질 것 같다.

와카미야 요시부미

일본 국제교류센터 시니어 펠로우

1948년 출생. 2013년 1월 아사히신문 주필 자리를 떠나, 현재 동서대학교 석좌교수와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겸임하며 한일 간을 오가고 있다. 저서로는 ‘한국과 일본국’(故 권오기 씨와의 대담), ‘신문기자’ 등이 있다.



서울에서 쓰는 편지 한약 와카미야 요시부미

1

Share

트윗 6

いいね! 8



댓글 입력...

댓글 달기

Facebook 소셜 플러그인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⑫ 자극 충만했던 서양 언론인들과의 만남



September 23, 2013

서울에서는 서양언론과의 귀중한 만남도 종종 있다. 이달 9일 중앙일보 주최로 열린 글로벌포럼도 그랬다.

트윗 3

いいね! 15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⑪ “사랑해요!” 급우들아, 고맙다!



September 04, 2013

3월 입학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하고 말았다. 6개월 가까이 매일 다닌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애기다.

트윗 1

いいね! 27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⑩정치는 티격태격, 사람들 교류는 ‘다른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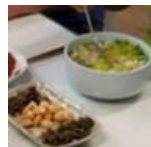
August 09, 2013

얼마 전, 한국 신문을 보다가 “응?” 했다. 일본사람 지인 한 명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스타 같아서 순간 잘못 봤나 했는데, 설명을 보니 틀림없이 일본대사관 후 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정무공사가 아닌가. 한국 외교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장면이었다.

트윗 1

いいね! 24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⑨즐겁달까, 신촌에서의 하숙 생활



July 26, 2013

나의 서울생활도 어느덧 4개월 반. 정계는 요즘 여야격돌로 소란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서민들의 눈은 냉담하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하숙생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단신으로 와 있는 나는 자취가 서툰고 외식만으로는 재미가 없는데다 나날이 대화할 상대도 있었으면 싶다. 대학가 신촌에서 하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트윗 3

いいね! 21

이전 페이지

|칼럼| ‘서울에서 쓰는 편지’ ⑬ 조용필이여, 희망의 빛으로

English Japanese Chinese Korean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 문의하기

게재 기사, 사진 등 모든 콘텐츠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 및 국제 조약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